

“선묵화는 참나 찾는 수행”



범주 스님 선묵화 30년 결산展

“제게 선묵화는 수행의 방편입니다. 몰입해서 무아상태에 들어가 작업한만큼 선묵화를 보는 사람의 마음 역시 비워줄 수 있는 선기(禪機)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작품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포교 방편이 되겠지요.”

달마도의 대가 범주 스님(달마선원장)이 선묵화 30년 중간 결산의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에서는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02-732-2183)과 법륜사 불일미술관(02-733-5322)에서 동시에 문을 연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에서는 23일까지 10일간 선묵화 100점과 선묵 도자기 50점을 선보인다. 이 전시회의 수익금은 전액 조계사 국제선센터 조성 기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는 선다화와 선차다구를 첫 공개한다. 18일간 선다화 50점, 선차다구 50점, 선묵화 등 30점을 선보인다. 천연연색 천위에 그려진 선다화와 매란국죽 금니 사군자화 등이 신선함을 더한다. 사찰 고문살 위에도 한지와 천연연색천을 붙이고 선다화를 그려 ‘선차’ 다도의 운치를 살렸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불일미술관서
10월 13일부터... 선다화·선차다구 첫선



“우리나라의 다도는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친 경향이 많아 ‘선차’를 통해 차를 마시며 선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선차를 널리 알리고 다도의 내용을 본질하게 해야한다”는 범주 스님은 “불교 수행과 포교에 중요한 ‘선차’에 어울리는 다구와 다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관음요와 손잡고 다구를 만들어왔다”며 ‘선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시 첫날인 10월 13일에는 명원문화재단의 다도 시연, 조계사 육법공양단의 육법공양과 무용단의 승무, 범주 스님의 달마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개막전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에서는 오후 2시에, 불일미술관에서는 오후 6시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다.

2차 부산전은 11월 10-20일 국제신문사 화랑에서 선묵화 30점, 선묵도자기 20점, 선다화 30점, 선차다구 20점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출가 전 미술학도였던 범주 스님은 “존재의 본질을 찾기 위해 예술을 택했는데 그림에서는 그 본질을 찾을 수 없었다”며 “대불편을 만나 불교를 알게 됐고, 직접 몸으로 부딪쳐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에 학교에서 사회로 나아가지 않고 산으로 갔다”고 출가 인연을 털어놓았다.

1976년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첫 번째 선묵전(禪墨展)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25번의 전시회를 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총무원 청사에서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범주 스님.

“참나를 찾을 때까지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범주 스님은 “‘선차’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지연 기자

Interview 달라이 라마 초청받아 인도서 영산재 공연 일운 스님

괘불 실사 출력해 뉴델리 무대 장엄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난해 7월 티베트 모래만다라 법회를 기획하면서 톨렌 스님을 만날 기회를 준 덕분에 달라이 라마의 초청을 받았습니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일운 스님(육천범음대학장·사진)이 인도 뉴델리의 티베트하우스에서 열리는 제3회 국제 불교음악·불교의식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공연을 이렇게 밝혔다.

일운 스님은 영산재 이수자 법현(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효성·윌타 스님, 전수자 효광 스님등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로 10월 8·10일 인도 뉴델리 티베트하우스 공연장에서 영산재의 장엄한 무대를 연출했다.

“3명만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3명으로는 우리나라 영산재의 장엄을 보여주기 힘들겠더군요. 2명을 더 데려가도 되겠냐고 문의했더니 주축회에서 무척 기뻐하면



서 입국 및 체류 절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산재를 더 효과적으로 선보일까를 고민하던 일운 스님은 공연 때 걸리는 괘불을 현수막으로 실사출력해 지참했다. 가로 3m50cm, 세로 4m50cm의 현수막은 실제 괘불과 동일한 장엄함을 무대에 선사했다.
티베트 망명정부 달라이 라마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몽골 등 아시아 7개국이

동참했다.
8일 개막식은 7개국의 불교의식을 조금씩 선보였다. 달라이 라마가 의식을 직접 집전해 신심을 돋웠다. 10일 열린 페스티벌 본 무대에서 우리나라 영산재는 1시간 20분 동안 불교음악 별패 거림산, 짓소리와 훗소리, 불교무용, 바라춤과 나비춤, 법고춤 등을 공연했다.

강지연 기자

자연이 들려주는 숨소리 화폭에

‘먹물 한 점 찍어...’ 김양수展



작품 ‘담쟁이’

“‘먹물 한 점 찍어 붓을 들면 그들이 웃을까?’ 경기도 안성 칠장사 아랫마을에 자리잡은지만 3년이 지나 자연을 그린 작품을 들고 김양수(시인) 화백이 찾아왔다.

10월 18-24일 관훈동 학교재에서 열리는 ‘먹물 한 점 찍어 붓을 들면 그들이 웃을까-김양수 전’은 국내에서 3년만에 여는 전시이다.

자연 속에 파묻혀 지낸 3년, 그동안 자연이 끊임없이 해오는 말들을 그림과 글로 옮겼다. ‘생이란 어떤 것일까’를 화두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천지 사물의 생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생에 대한 관심으로 그려진 그림들 안에는 평소 끊임없이 생각해왔던 부처님의 말씀이

스며있다”고 김양수 화백은 말한다.

작품을 하는 틀들이 칠장사에 올라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 전시에 소개하는 작품은 모두 25점. 전시작 가운데 ‘길’은 바람 구름 따라 순리대로 길을 가면 우리 인생이 순탄해지면서 여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담았다.

“저는 행복해지려고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행복하게 그린 그림을 보는 이들도 행복해지면 저는 두 번 행복하겠어요. 제 그림을 본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꿈입니다.”

김양수 화백에게 ‘행복’은 작업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서정적’이라 평가받는 김 화백의 그림과 함께 간간히 적어내린 자작시들은 도록에서만 만날 수 있다. 그림 감상을 해줄 수 있다는 우리 때문에 도록에조차 모든 시를 다 수록하지는 않았다.

“가장 좋은 예술은 자연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김양수 화백. 그래서 칠장사 아랫마을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주는 감동은 김양수 화백의 그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모티브다.

(02)739-4937

강지연 기자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살아요”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품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滿 行 靴 化

가죽만 행화

■ **소재특징**: 범주 국제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털 깔창

-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건강 슬리퍼

지압(항균 살리본) 판, 특수발판, 개인별 표시

- 가격: 60,000원
- 규격: 225-285mm
- 색상: 회색, 흑색

중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상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황금 실리본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의 발관리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지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산승복 062)228-2870
•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김윤경승복 064)724-7999

정우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신뢰**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정우 천연 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96번지
전화 062)226-4445
팩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